

봄물 머금은 동백 붉은 꽃망을 '활짝'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95) 강진 만덕산 백련사

바닷바람이 닿는 남도의 사찰이면 어딜 가나 크고 작은 동백숲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고창 선운산 선운사 동백숲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걸음은 바다를 건너온 봄이 동백으로 만개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를 찾았다.

백련사는 신라 하대 선문구산이 열리던 9세기 말에 무염 선사에게 의해 '만덕사(萬德寺)'라는 이름으로 초창되었다. 그 후, 고려 무신정권 때 원묘 국사(圓妙國師) 요세(世)가 진보적인 신앙결사체였던 백련사(白蓮社)를 이 절에 설치하면서 지금의 백련사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다. 백련사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길 왼쪽으로는 수령 20년 안팎의 편백숲이 울창창창하고 오른쪽으로는 네모난 섬을 띄운 넓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흰한 대낮에도 고라니가 내려와 물을 마시고 가는 연못 주위로 사방 오희나무들이 이제 막 꽃눈을 틔우기 시작했다.

사방오희나무는 토사유출이 심한 경사지에 리기다소나무와 함께 사방(砂防)용으로 많이 심었던 나무이다. 일본 원산으로, 생육속도가 빠르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지만, 요즘은 즐겨 심지 않는다. 수꽃은 이삭 형태로 늘어서고, 암꽃은 수꽃이삭 밑에 달린다. 몇 마리의 매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기적을 알고는 머뭇거리고 있다. 꾀는 일부다처의 새이지만, 이즈음에는 무리생활을 하기도 한다. 꾀는 천태 지자 대사 전설을 비롯해 치악산 상원사 전설 등 불교설화에 많이 등장하여 친근감을 준다. 예전에는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집 앞에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꾀 깃을 끼워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봄이 일러서 여름철새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아우르는 만덕산 지역의 텃새는 박새류와 멧새류들이 많다. 동백숲에는 직박구리와 동박새가 세력을 양분하고 있다. 두 종류 모두 동백꽃 꿀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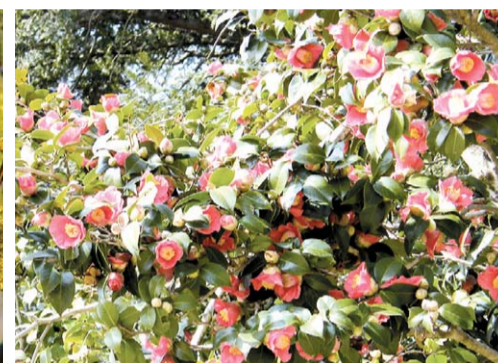
연못을 지나 주차장에 이르면 그 유명한 동백숲이 시작된다. 고창 선운사 동백도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백련사 동백을 더 좋아한다. 선운사 동백은 절망을 쳐서 접근을 거부하지만, 백련사 동백은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속내를 다 드러내주기 때문일 것이다.

주차장에서 백련사까지 300여m, 동백숲 사이로 길이나 있다. 면적은 약 3ha,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이다. 동백숲은 대웅보전 뒤쪽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일반인 출입금지로 묶여두었다. 개체수는 약 1500그루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대략 5~6m, 지름은 20~30cm 안팎이다. 속종조인 1681년에 세운 백련사 사적비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아 수령은 약 200~300년 정도이다.

동백은 바닷바람을 좋아해서 동해남부와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이 가까운 지방에 자생한다. 우리나라



명자꽃, 꿩, 사스레피나무꽃, 동백꽃 무더기, 사방오희나무, 꽃지,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않다. 겨우 사스레피나무와 어린 후박나무들이 눈에 띈다. 사스레피나무는 키가 3m 안팎인 작은 상록수이다. 여름보다 봄에 잎이 더 윤곽해 보이는 것은 주위의 활엽수들이 아직 잎을 내지 않아서 햇빛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햇빛을 받아서 작고 앙증맞은 꽃들을 피운다.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는 동백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꽃이다.

부처님이 나신 인도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난대상록수로, 사찰 조경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번식 방법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즉시 과육을 제거한 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꺾꽂이로 증식한다. 깃대봉 정상에서 암릉 등남을 지나면 바람재에 이른다. 지나는 동안 양치식물인 구실사리가 그물처럼 바위절벽을 덮고 있다. 아작은 바람결이 차가워서 붉은빛을 띠고 있으나, 날이 좀 더 풀리면 파랗게 덮일 것이다.

바람재 못 미처서 하산길이 있는데, 울퉁불퉁하던 기반암들이 사라지고, 도타운 흙길이 나타난다. 이대군락지를 가로 지르는 길이 마치 타널처럼 나 있어서 별천지를 느끼게 한다. 조선시대에 강진에 수군병영이 있었다. 따라서 이대군락지는 화살을 제작하기 위해 정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숲길을 내려오면 오솔길 네거리가 나온다. 왼쪽으로는 백련사, 오른쪽으로는 다산초당 가는 길이다. 다산 정약옹이 강진으로 유배를 내려온 것은 1801년의 일, 그 후 장장 18년을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다산은 긴 유배생활 동안 다산초당에서 <묵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당시 다산은 자신보다 아래인 혜장(惠藏) 선사를 벗 삼아 백련사를 오갔다. 절에서 다산초당까지는 오솔길 800m. 오솔길 주변으로는 가꾸지 않은 야생차나무들이 사람 키만큼이나 웃자라서 덩실룩하다. 2004년 녹색기금을 지원받아 강진군에서 이 오솔길을 생태탐방로로 지정하고 5ha에 활참나무 등 여러 종의 나무들을 심었다.

다산은 실학자답게 숲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저서 곳곳에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만덕산 일대에는 선재(薪材)에 쓰이는 질 좋은 소나무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 초당 주변 산자락을 뒤덮고 있는 소나무들이 모두 그 후계 송들이다. 나라에서는 만덕산을 봉산(峯山)으로 지정하여 수영(水營) 관아에 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는 백련사에서 맡았던 모양이다. 다산의 시 <소나무 뽑아내는 스님(僧拔松行)>(이정탁 역)이라는 작품에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산에 숲 기르기가 얼마나 애썼던가 / 스님 상좌 할 것 없이 성심 성의 가졌어라 / 땀나무 아끼느라 찬밥으로 끼니하고 / 골골마다 순찰 돌며 새벽종을 울리었네. / 고을 성안 초부들도 감히 얼씬이나 하였으랴 / 시골 농민 도끼야 얼씬이나 하였으랴.'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_e@hanmail.net

난대상록수 가운데 가장 돋보이고, 정서적으로 친근한 나무이다. 연한 회백색의 매끈한 줄기, 무성한 가지와 윤기 나는 푸른 잎, 빨간 꽃잎과 노란 꽃술로서 다른 나무와 차별된다. 동백에는 꿀이 많이 들어 있지만, 추운 겨울에 피기 때문에 수분을 도와줄 벌나비가 귀하다. 그래서 동박새와 직박구리들이 벌나비를 대신해서 수분을 도와준다.

동백숲 속에는 동백 말고도 차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비자나무, 메밀자뽕나무, 구실자뽕나무 등 난대상록수와 푸조나무 같은 난대활엽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입상에는 마삭줄과 보춘화(춘란) 등이 자라고 있다. 한때 젊이 무성하게 넓게 피복(被復)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걸췌진 상태이다.

만덕산은 예로부터 야생차가 많이 자생하여 '다산(茶山)'이라고 불렸으며, 산 너머 초당에서 유배를 산정약옹이 그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지었다. 동백숲에서 다산초당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백련사 전각들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석단 위에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는 만경루 누각을 가운데 두고 범종각과 요사채가 자리하고, 중단에는 좁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요사채가 있으며, 상단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과 응진전 등이 자

동백나무 1500여 그루로 이루어진 '동백숲' 유명 만덕산은 다량의 야생차 자생 '茶山'으로 불리기도

리하고 있다. 원고 이광사의 명필편액이 걸린 대웅보전 석축은 마치 칠을 한 듯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돌 속에 함유된 철분이 산화작용을 해서 걸췌로 드러난 것이다.

조경수로 쓰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와 만경루 앞 배롱나무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동백나무로도 충분히 때문일까... 동백꽃이 흐드러질 때면 앞뜰에 심은 명자나무 한 그루가 시샘하여 꽃잎을 연다. 나팔여초에 스님들이 중국을 드나들며 들여와 산중 절에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자나무는 그래서 일명 '산당화(山當花)'라고도 한다. 꽃이 화사하여 완상용으로 좋다.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를 해서 절에 생울로 심어도 좋다.

풀은 나무보다 계절에 섬세하고 민감하다. 풀이 나무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내에 꽃다지, 광대나물, 냉이, 산자고, 양지꽃, 벌꽃, 개불알꽃, 제비꽃 등의 초본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을 피웠다. 절에서 만덕산으로 올라가는 산행길이 좌우 두 곳에 있다. 백련사-안부-깃대봉(정상)-등남-바람재-다산초당으로 이어진 산행로는 정상에서 바람재까지의 암릉을 빼고는 그야말로 호젓한 오솔길이다.

만덕산의 식생은 특기할 만한 특징은 없다. 산이 마을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랜 동안 연료목을 대주느라 식생이 많이 훼손되고 교란됐다.

절 주변에는 동백숲 말고 다릅나무, 사람주나무, 산가막살나무, 정금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등 온대활엽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절 뒷편과 능선 부에는 굴참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참나무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단풍나무, 때죽나무, 쇠물푸레, 예덕나무, 털진달래, 사스레피나무, 율나무, 이나무 등이 섞여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만덕산은 남해안의 해양성 기후권에 들어 있지만, 난대수종들은 그리 다양하지

www.sunbul.co.kr

성 불 조각 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예,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릉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운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